

Kuraray, TPE 4000톤 증설

Kashima 소재 Septon · Hybrar 증설 ... 2005년 1월 완공

일본 Kuraray가 2005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총 15억엔(1366만달러)를 투자해 Ibaraki현 Kashima 플랜트의 Septon 및 Hybrar 생산능력을 총 2만3000톤으로 4000톤(21%) 확대할 계획이다.

Septon 및 Hybrar는 Kuraray의 대표적인 Hydrogenated Styrene TPE(Thermoplastic Elastomer) 제품이다.

Kuraray에 따르면, 세계 Hydrogenated Styrene Elastomer 시장규모는 약 10만톤에 달하며 Vulcanized Rubber 및 PVC(Polyvinyl Chloride)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연평균 10%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현재 미국이 세계 Hydrogenated Styrene Elastomer 시장의 약 50%를, 유럽 및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가 25%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럽, 미국 및 아시아 시장이 시장성장의 주역이 되고 있다.

Kuraray는 세계적인 고기능성 소재 및 특수소재 수요 증가세를 바탕으로 TPE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총 5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.

TPE 사업은 PVC 및 Ethylene Vinyl Alcohol Copolymer와 함께 Kuraray의 핵심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.

한편, Kuraray의 미국 자회사 Septon Company of America는 Elastomer 생산능력을 1만2000톤 증설했다.

<화학저널 2004/06/09>